

김억의 「지새는밤」(1930)과 서사시적 상상력의 가능성

조은주*

초록 본 연구는 김억의 「지새는밤」에서 ‘당대성’과 ‘동시대성’,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 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대 서사시로 규정하고 내용 및 주제론적 차원에서 작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김억의 「지새는밤」은 1930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동아일보』에 ‘長篇抒情敘事詩’라는 부제 아래 연재된 작품으로 두 남녀 주인공 명순(明順)과 영애(永愛)의 사랑과 이별, 이후 유랑과 고난들, 그리고 마지막 재회까지를 기본 플롯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새는밤」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과 ‘유랑’ 그 자체다. 사포촌의 몰락은 토지조사사업으로 가속화된 농촌의 몰락과 조선 전역의 상황을 알레고리화하며 ‘고향 상실의식’으로 이어진다. ‘고향 상실의식’은 ‘부제와 상실’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명순네 가족은 사포촌을 떠나 만주로 이주했으나 가난과 부모의 죽음 등으로 ‘낙토’(樂土) 만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영애는 남동생의 실종,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홀어머니와 함께 평양으로 이주하지만 결혼에 실패하고 기생으로 전락하는 등 남성적 존재가 사라진 세계에서 여성으로서의 열악한 삶을 보여 준다. 명순은 1920-30년대 몰락한 농촌과 조선 농민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이며 영애는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이중적 타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다. 즉 명순과 영애는 공동체적 주체로서의 개인이며 이들의 삶의 여정은 당대 조선의 민족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내장하고 있다. 특히 만주 체행은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근대사에서 서사시적 상상력의 핵심 요소로 조명할 가능성이 있다.

주제어 김억, 「지새는밤」, 서사시적 상상력, 고향 상실의식, 유랑, 만주

1. 근대 서사시 논쟁과 김억의 「지새는 밤」 연구의 필요성

김동환의 『국경의 밤』은 서사시인가, 아닌가. 지금은 사그라졌지만 한 때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천착했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경의 밤』의 장르 규정의 문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서사시(敘事詩, epic)는 서정시나 극시와 달리 ‘운문’(韻文)에 의해서만 모방하는 시이고 비극에 서처럼 ‘위대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 모방하되, 그 모방은 반드시 서술적 방법(Narrative)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¹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을 둔 서구의 장르 개념에 의한다면 김동환의 『국경의 밤』은 분명 서사시일 수 없다. “저열한 인간, 즉 常民과 在家僧의 世俗的 러브 스토리에 불과”하며 서사시의 삽화적 구성 대신에 “드라마틱한 플롯”을 따랐고, 시대적·민족적 운명에 대해 무관심해 보이고 “新派劇의 센터멘탈리즘”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는 서사시는 음송자인 바드(Bard: 음유시인)의 소멸로 인해 현대에 논할 필요가 없는, “이미 죽어버린 장르”일 뿐이며 따라서 『국경의 밤』은 “個人 創作의 발라드 혹은 그에 유사한 敘述的 抒情詩라고 보아야”³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국경의 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근·현대 시문학사에는 『국경의 밤』(1925)뿐만 아니라 김억의 「지새는 밤」(1930), 김상훈의 『가족』(1948), 김용호의 『남해찬가』(1952), 신동엽의 『금강』(1967), 김지하의 『오적』(1970), 신경림의 『남한강』(1981), 신경림의 『새재』(1973), 고은의 『백두산』(1987) 등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서정시와는 다른 특별한 시

1 Aristoteles(2002),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pp. 135-162.

2 오세영은 「국경의 밤」이 서구적 서사시 개념에 전혀 맞지 않는 신파극적 감상성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며 ‘발라드’(譯詩) 혹은 ‘서술적 서정시’로 규정한다[오세영(1977), 「국경의 밤과 서사시의 문제」, 『국어국문학』 75, 국어국문학회, pp. 87-108].

3 오세영(1977), p. 88, p. 108.

의 형식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서술시, 이야기시, 장시와 같은 장르적 개념을 고안하여 이를 해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지속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 그러나 그 개념상의 엄밀성은 차치하더라도 ‘서술시’와 ‘이야기시’는 서사시의 내용(이야기)이나 표현 방식(서술)을 대체한 개념이며 ‘장시’ 역시 서사시의 형태(길이)에 기반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장르 개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오히려 서구와는 다른 우리의 ‘서사시’를 장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들로 이해된다. 장르 규정에서 비껴나 ‘서사성’, ‘서사지향적인 시’⁵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돌파하려던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서사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의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장르 개념은 애초에 고정불변의 범칙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었다. 장르는 초역사적으로 추출된 일정한 구조이자 형식임은 분명하지만 “포괄성이나 「풍요성」에 입각해서 구축”⁶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 및 자연, 문화 등과 불가분의 관계⁷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서사시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시대가 그 자신의 epic을 지니고 있다”⁸고 여겨

-
- 4 윤석우(1998), 「한국 현대 서술시의 담화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경희(2005), 「서술시의 개념과 유형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6(2), 한국근대문학회, pp. 390-420; 김영철(1994), 「산문시와 이야기시의 장르적 성격 연구」, 『인문과학논총』 26, 건국대인문과학연구소, pp. 35-53; 박은미(2004), 「장르 혼합현상으로 본 이야기시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pp. 219-249; 김종길(1969), 「한국에서의 장시의 가능성」, 『문화비평』 1-2, 여름; 장부일(1992), 「한국 근대 장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고희진에 의하면 ‘서사지향적인 시’란 “전통적으로 서정양식의 미적 구조 위에 서사 양식의 미적 구조가 혼합되어 나타난 역사적 변종 장르로서 ‘장르중’의 개념”이다[고희진(2003),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p. 13].
- 6 Rene Wellek and Austin Warren (1990),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p. 350.
- 7 Gérard Genette (1987), 최애리 역, 「원텍스트 序說」, 『장르의 이론』(김현 편), 문학과지성사, p. 110.
- 8 Roy Harvey Pearce (1961),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장부일(1992), p. 17.

질 정도로 탄력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근대적 서사시’⁹라는 개념 역시 소설의 전사로서의 기존 ‘서사시’ 개념의 변화를 방증한다고 판단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장르 개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과감하게 이탈하여 우리의 서사시를 규정하려는 논의는 보다 생산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예컨대 홍기삼, 조남현, 염무웅, 김재홍, 조동일 등의 논의는 주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⁰

서사시에 대한 위의 논자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의 경우 서사시는 ‘시’의 영역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 전통적인 서사시와는 달리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역시 서사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족이나 국가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는 점, 서사시는 역사적 진실의 반영이며 동시에 당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전의 한 양식이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서사시를 우리 문학의 고유한 성격 아래 독자적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물로 보인다. 조동일이 지적한 서사시와 구전서사민요와의 상관성은 그러한 의지가 보다 적극화되어 한국적 서사시의 계보와 그 기원을 모색하려 한 시도다. 이렇듯 7, 80년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독자적인 장르로서의 ‘서사시’에 대한 논의는 이후 ‘서술시’, ‘이야기시’, ‘서사성’, ‘산문성’, ‘서사지향성’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면서 그

9 모레티는 『파우스트』, 『백년동안의 고독』에서 “과거의 언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생산”하는 것, “먼 옛날의 화석들이 미래 세계의 피조물들과 공존하는 우주의 특수한 역사성”의 발현 등을 근대적 서사시(Modern Epic)의 요소로 보았다[Franco Moretti (2001),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p. 145].

10 홍기삼(1975), 「한국 서사시의 실제와 가능성」, 『문학사상』 3월호; 조남현(1978), 「김동환의 서사시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총』 11,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01-122; 염무웅(1981), 「서사시의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문학의 현단계 1』(1982), 창작과비평사; 김재홍(1985), 「한국 근대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가을호; 『현대시와 역사의식』(1990), 인하대학교 출판부; 조동일(1987), 「서사시론과 비교문학」, 『한국문화』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18; 조동일(1990), 「서사시의 전통과 근대소설」, 『관악어문연구』 15-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 49-81.

맥을 이어 왔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서사시’는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국의 서사시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서사시는 서사적 구조(인물, 사건, 공간)를 갖춘 내러티브가 중심이 되는, 서정적 양식과 서사적 양식의 혼합적 장르로 규정되고 있다. 즉 주관과 객관의 결합, 서정성과 서사성의 결합으로 이해되는 것이다.¹¹ 이는 서정시가 서사적 사건을 채택함으로써 서사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던 헤겔의 지적, 서사시를 주관과 객관의 결합으로 파악한 슬레겔의 지적과도 통한다. 서사시는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보다는 환유의 원리가 비교적 우세하며 ‘화자-메시지-청자’의 담론 구조의 틀을 지니게 된다. 이때 담론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담론과 화자의 독백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다른 서사양식과 구별된다.¹² 서사시의 요소 가운데 단연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서사시가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¹³ 즉 서사시는 ‘우리’라는 공동체와 관련된 역사적, 현실적 사건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도입한 것으로¹⁴ 대상의 총체성을 추구해 가는 장르이자¹⁵ 총괄적인 비전의 문학 형식이라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주제적이고 의미

11 ‘서사시’에 주목하고 있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지적하는 것이 혼합적 장르로서의 서사시의 성격이다. 예컨대 서지영은 ‘시에서의 산문성’이 전통적인 장르 규범에 저항함으로써 반운문적 현상을 발생시키며 동시에 반서정적 양식(서사적, 극적)을 수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고 보았다(서지영(1999), 「한국현대시의 산문성 연구: 오장환, 임화, 백석, 이용악, 이상 시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24).

12 김형철(1994), 「한국 현대 서사시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

13 홍기삼, 조남현, 염무웅, 조동일이 ‘집단적’, ‘민족적’, ‘공동체적’이라는 형용사를 통해 강조하는 사유는 서사시의 주제의식에 있어 핵심이다.

14 장부일(1992), p. 179.

15 김영진(1992), 「한국근대서사시의 전개양상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16 김준오는 “과인과 신동엽의 장시를 서사시로 보든 서정적 서술시로 보든 평자들은 이런 전체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전체성이 서구적 발상법으로서 **이미 죽어버린 서사시를 선택하는 목적인이 된다.**”라고 말한다.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서사시가 창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언급이다(김준오(1990), 『한국 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p.

론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한국의 서사시를 규정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서사시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상황 및 그 시대의 내밀한 정신사적 맥락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사시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근대 한국 서사시를 규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한국의 서사시는 첫째, 서사적 구조를 갖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서정 양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혼합 장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시’로 작성된 것이다. 고대의 서사시처럼 낭송이 목적이 아니기에 정형률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일반적 시로서의 운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¹⁷ 다시 말해 서사시는 ‘**서사적 구조**’와 ‘**운율**’을 갖춘 ‘**시**’로 작성되어야 한다(①).¹⁸ 둘째, 한국의 서사시는

190).

- 17 ‘운율’은 한국의 서사시 규정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오세영은 전통적 서사시는 낭독에 적합한 영웅시체(Heroic verse)를 본질로 하나 한국에서 “영웅시체 운율에 의한 서사시는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다”[오세영(1977), p. 93]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도준은 서사시체의 운문이 “서구적 서사시체의 운문과 같은 필요는 없다”[장도준(2000), 「한국 근대 서사시와 단편서사시의 장르적 특성 연구」,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pp. 338-340]고 반박한다. 그는 김동환과 김억이 “우리 근대시의 율격적 실패”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였고 **시행 분리, 비슷한 형태적 요소나 표현의 반복 등을 통해 “주관적 장르로서의 서정시적 내재율과 어조를 부분적으로 살리거나 가미되도록 애썼”**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국경의 밤』(3부 72장)은 3부를 제외하면 1부, 2부가 평균 10행에서 11행으로 상당히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며 압축적으로 시행을 나눠 운율을 형성한다. 『昇天하는 靑春』(7부 61장)은 ‘반복어법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한 운율 형성을 시도한다[조남현(1978), pp. 15-16]. ‘한국서사시’의 특징으로 “장중한 문체와 민족 특유의 보편적 율격”[김영진(1992), p. 15]이 꼽히듯이, 서사시로 언급되는 작품들은 행과 연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한 행을 비교적 짧게 구성함으로써 ‘운율’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서사적 구조’를 갖춘 다른 장르, 즉 소설이나 운율을 배격하는 ‘비율문형 산문시’와 변별되는 특징이다. 한편 운율을 갖춘 ‘율문형 산문시’도 행, 연을 구분하지 않고 보통 3-4페이지로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 ②의 항목에서 서사시와 변별된다[오세영(2003), 『문학과 그 이해』, 국학자료원, pp. 418-420].
- 18 ①의 항목은 서사시가 서정시의 하위범주인 산문시, 혼합장르인 서술시(이야기시)와 공유하는 요소이다. ‘서술시’는 서사성(사건, 이야기)을 내포하고 있는 시로 서정시의 하위 범주인 ‘서정지향적 서술시’ 뿐만 아니라 ‘서사지향적 서술시’, ‘극지향적 서술시’ 등으로 작성되며 초장르적 성격을 띤다[엄경희(2005), pp. 13-14]. ‘단편서사시’는 김기진과 임

길이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하나의 사건이 완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전개-결말’, 혹은 ‘발단-전개-절정-결말’이나 한시의 ‘기-승-전-결’에 준하는 정도의 구성이 요구된다. 즉 **최소 3부 이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②).¹⁹ 셋째, 한국의 서사시는 과거의 영웅적 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현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시기를 다루든 그러한 내용을 통해 ‘당대성’, ‘동시대성’을 획득하고 있어야 한다(③). 당대성은 그 시대에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동시대성은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응전으로서의 성격과 관련된다.²⁰ 넷째, 한국의 서사시는 공동체가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적 사건을 이야기로 다룸으로써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담고 있어야 한다(④). 표면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서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문제와 결부된 사건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 주며 미래에 관한 전망을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의 서사시는 위에 제시한 4개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는 작품들이다. 이때 ①은 서사시와 소설, 시적 산문, 비유문형 산문시(서사적 산문시)를 구분하는 항목이며 ②는 1930년대 서사시와 단편서사시를 나누

화에 의해 촉발된 자생적 개념으로 문단에서의 논의 등을 존중하여 ‘서사시’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나 “전체적으로는 고무, 찬양, 권고, 애원 등의 주관적 표현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서정서술시’[김영철(1994), p. 50]다.

- 19 길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별로 논쟁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나 중요한 형식적 기준인바, 비극의 3부작 정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오세영(1977), p. 96]. 이는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갖추고 있음에도 비교적 짧게 작성되는 ‘서술시’와 변별되는 요소다.
- 20 당대성(當代性)과 동시대성(同時代性)은 영어로 번역하면 ‘contemporariness’로 동일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 ‘당대성’은 창작되는 시대에 속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동시대성’은 아감벤의 개념을 참고, “시대에 들러붙어 있지만 동시에 시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정신이다[Giorgio Agamben (2014), 김영훈 역, 『별거벗음』, 고양: 인간사랑, pp. 23-24]. 동시대인은 “시대의 어둠을 보는 자들”[Giorgio Agamben (2014), p. 27]로 규정되는데 『국경의 밤』과 「지새는밤」에서 세계를 ‘밤’으로 알레고리화하는 정신은 동시대성의 발로로 평가할 수 있다.

는 형식적 기준이 될 수 있다. ③, ④은 약간 길게 창작된 서정시, 즉 장시(長詩)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다.²¹ 특히 해방 이후 현대의 서사시로 내려올수록 과거의 영웅적 인물을 내세우면서 서구적 장르 개념에 부합되는 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다는 점에서²² ③을 세분화하면 근대 서사시와 현대 서사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는 서사시의 형식적 요건이며 ③, ④은 서사시의 내용적·주제론적 요건이다. 본고는 ③, ④의 요소를 한국시에서 서사시의 세계를 견인하는 정신으로 조명하고 이를 ‘서사시적 상상력’으로 명명하고자 한다.²³ 실상 ①, ②와 같은 형식적 조건은 논쟁할 필요 없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③, ④는 서사시 각 작품마다 구현되는 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작품의 고유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서사시 창작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한 김억의 「지새는밤」에서 서사시적 상상력이 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억의 「지새는밤」은 『국경의 밤』에 뒤이어 창작되었고 1930년대 ‘단편서사시’의 기폭제가 된 근대적 서사시의

-
- 21 장시(長詩)는 1인칭 단수로 주관적 관조나 명상에 의한 정서표출을 주로 하는 관념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하위범주다[여지선(2011), 「한국 長詩와 역사적 상상력의 다층성」, 『우리말 글』 53, 우리말글학회, p. 6].
- 22 신동엽의 『금강』, 신경림의 『새재』, 고은의 『백두산』에는 ‘비천한 신분과 영웅적 성장담’, ‘영웅적 투쟁의 서사’, ‘비장한 죽음과 희망의 비전’이라는 일련의 서사적 과정이 있다[오윤정(2007), 「한국 현대 서사시의 서사 구조 상동성 연구」,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pp. 287-315].
- 23 ‘서사시적 상상력’이란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표출에 집중하는 ‘서정시적 상상력’이나 서사적 구조를 통해 서사장르를 지향하는 비유문학 산문시, 서사지향적 서술시의 ‘서사적 상상력’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른바 ‘서사시’를 지향하는 상상력이다. 이는 Tillyard의 ‘서사 정신’을 변용한 것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서사시의 요건 가운데 ③, ④의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개념화한 것이다. Tillyard는 ‘서사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 경건성의 가치에 대한 믿음”, “동시대성과 집단 의식을 보여주는 의식적 의지”, “영웅적 각명과 영웅정신에 의한 자연스러운 당대성”을 꼽는데 이는 본고에서 제시한 서사시의 주제적 요건과 조우한다[E. M. W. Tillyard(1965), *The Epic Spirit*(L.S.Hall eds.), The Macmillan Company, pp. 16-18. ; 민병욱(1987), 『한국 서사시의 비평적 성찰』, 부산: 지평, p. 26].

출발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간의 근대 서사시 연구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새는밤」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지새는밤」 관련 논문이 3편²⁴, 개작된 『먼동틀제』 관련 논문이 2편²⁵ 제출되었으나 비교연구가 대부분이므로 본격적 연구가 개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왕의 연구에서 「지새는밤」이 ‘서사시’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는 분위기이다. 다만 두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라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이는 「지새는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는 김억의 「지새는밤」에 ‘당대성’과 ‘동시대성’,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근대 서사시로 규정하고 내용 및 주제론적 차원에서 작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억의 「지새는밤」에서 ‘서사시적 상상력’이 작동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근대시에서 서사시적 상상력의 범주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윤여탁은 「지새는밤」을 “서사시향의 서술성, 감상성을 지닌 서사시”로 규정하며 흔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센티멘탈리즘’이 “서사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적 정서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보았다. 김홍진은 「지새는밤」이 “서술시의 서사성”을 갖추었고 “통속적 애정 시련담의 변용”으로 당대 상황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송영순은 「지새는밤」을 ‘범인(凡人) 서사시’로 규정하고 “1920년대 식민지 민족의 수난과 갈등을 낭만적 서사로 구축”하였다고 보았다[윤여탁(1987), 「1920년대 서사시에 대한 연구: 「국경의 밤」과 「지새는 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6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 318; 김홍진(2005), 「김억의 「먼동틀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123; 송영순(2013), 「「국경의 밤」과 「지새는 밤」의 상호텍스트성, 『한국문예비평연구』 4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270].

25 김은철은 장르를 규정하는 데 있어 각 국가별, 민족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먼동틀제』를 ‘서사장르중’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춘남녀의 비극적 사랑 이면에서 읽히는 “반일감정과 민족의식”이 “감상적 차원에 머물 한계”가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형필은 『먼동틀제』를 ‘민요시’로 접근하고 있지만 구체적 작품 분석이 아닌 개괄적 정리에 그쳤다[김은철(1987), 「「먼동틀제」 연구, 『한민족어문학』 14, 한민족어문학회, p. 420; 김형필(2000), 「민요시와 「먼동틀제」, 『한국어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문학연구회, pp. 271-285].

2. ‘변경’(邊境)으로서의 사포촌(沙浦村)과 고향 상실의식

김억(岸曙 金億: 1896~?)은 1930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동아일보』에 ‘長篇抒情敘事詩’라는 부제 아래 「지새는밤」을 게재하였고 이후 이를 개작한 『먼동틀제』를 1947년 2월 15일 백민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 「지새는밤」은 두 남녀 주인공 명순(明順)과 영애(永愛)의 사랑과 이별, 이후 유랑의 삶에서 겪는 고난들, 그리고 마지막 재회까지를 기본 플롯으로 삼고 있는데, 7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순차적으로 총 40회에 걸쳐 876행으로 구성한다. 40회는 구체적으로 ‘沙浦村(3장)-生長(2장)-相思(2장)-沒落(4장)-離鄉(3장)-滿洲(10장)-歸鄉(4장)-永愛(8장)-再會(4장)’ 등의 소재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연을 기본 4행으로 만들고 한 행은 7.5조 12음절의 음수율을 지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다분하며 특히 각 행의 마지막 음을 각운으로 맞추려고 시도한 작품이다. 같은 해 김억은 “자유시를 볼때에 넘우도 산만함에 어느 점까지가 산문이고 어느 점까지가 자유시인지 알 수가 업서 놀래는 일도 만 습니다”²⁶라고 언급하며 산문과 변별되는 시가의 정체성을 고민하였고 소위 ‘격조시’를 주창한다. 이는 「지새는밤」 서문에서 “詩歌로의 根本的意義를 일치아니하기위하여 作者는 敘事詩를 씻슬망정 될수있는限에서는 한首 한首가 獨立的으로 存在할수잇도록 또는抒情詩로의 價値까지잇도록”²⁷ 쓰려 했다는 노력, 즉 정형적 운율에의 지향으로 이어진다.²⁸ 즉 서사시의 요건 ①의 항목에서 ‘운율’의 요소가 정형물을 통해 구현된 셈이다.

서사시의 요건 ②의 경우 소재목으로 구분된 9부를 간결화하면 ‘사포촌에서의 삶 - 이별과 유랑 - 재회’ 등 크게 3부로 요약된다. 이러한 구성

26 김억, 「格調詩形論小考」, 『동아일보』, 1930.1.17.

27 김억, 「長篇抒情敘事詩 지새는밤 作者로의한마디」, 『동아일보』, 1930.12.9.

28 「지새는밤」에서 시도한 7.5조 12음절은 김억이 “詩形의 音節數를 定”하여 모색하고자 한 “조선시형”의 추구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김억, 「조선시형에 관하여」를 덧붙여, 『조선일보』, 1928.10.21.].

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새는밤」에 등장하는 문제적 ‘장소들’이다. 「지새는밤」에 등장하는 지역명은 주인공 명순과 영애의 고향으로 설정된 ‘사포촌’(沙浦村), 명순이 고향을 떠나 유랑하게 되는 ‘만주’(滿洲), 만주에서 귀향할 때 명순이 거치게 되는 ‘신의주’(新義州), 영애가 기생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평양’(平壤),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는 ‘삭주’(朔州) 등이다. 이때 ‘사포촌-신의주’는 고향 계열로, ‘만주-평양-삭주’는 타향 계열로 묶일 수 있다.

여기는漁村, 西海바다 밀물은 / 바람에 쏘풀인가, 東西南北을 / 指向업시
 해매며 휘돌다가도 / 하로두썬 제대로 들너가는곳. // 고요한 바다싸엔
 써도는물결 / 걸걸히 노래하며 기슭을칠제, / 모래밭에 뚜렷히 그린발자욱
 / 無心타 하얏업시 씻기고마네. // (...) 浦口싸 酒幕에선 짙은船人들 / 愁
 心歌 목을노하 제멋長短에 / 하로가튼 쓴시를 거춘世上을 / 잔잡고 興어릴
 제, 밤도다가네. // (...) 浦口서 적은고개 西를넘으니 / 가즈런타 마을의 草
 家와기와 / 아페는들 들스텐 하얀한바다 / 다시금 西北으로 山을씨고서 //
 넓은들 논과바루 흘으는江의 / 해벗노는 풀사엔 어리어도네 (...) // 가을
 마다 들에선 쌀밥이나고 / 넓은바다 西海엔 고기가살아 / 싸담스런 이世上
 괴론살림을 / 이洞리는 몰으고 그저고요히 // (...) 우러르니 한울엔 맑은銀
 河水 / 牽牛織女 北斗星 예대로봐나 / 내世上엔 웬일고 꽃에는바람 / 아름
 답은 모든것 나날이지네

- 1~3회, ‘沙浦村’ 부분²⁹

우선 「지새는밤」의 출발점이 되는 ‘사포촌’(沙浦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포촌’은 1~3회에 걸쳐 김억이 공들여 묘사하는 공간으로 서해바다를 마주 보고 있는 해안마을이다. 사포촌을 “원초적인 ‘물’의 공간”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으나³⁰ 사포촌은 실상 이중적 공간이다. 작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가 드나드는 포구(浦口)와 맞닿아 있는 어촌이기 때문이다. 포구는 생계를 위해 배를 타는 어부들이 많은 공간이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접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인데, “浦口싸 酒幕에선 靑은船人들 / 愁心歌 목을노하 제멋長短에”에서와 같이 젊은 뱃사람들은 ‘바다’로 상징되는 “거춘세상”에 노출되어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것은 ‘술’과 ‘수심가’뿐이다. 퇴폐적인 밤 문화를 통해 묘사되는 포구 근방은 우울한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면 “浦口서 적은고개 西를넘으”면 ‘명순’과 ‘영애’가 살고 있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은 포구와는 매우 상반된 폐쇄적 공간이자 낭만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앞에는 들이 있고 그 끝에 바다가 있어 넓은 평야에서 나는 풍요로운 곡식과 바다에서 얻은 고기로 부족할 것 없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다. “南녘엔 기심노래 들우에차고 / 西山엔나물순의 흥어리소리” 등 곳곳에서 들려오는 민요와 노랫소리들은 태평성대를 연상시킨다.

‘사포촌’은 함흥 지역의 ‘사포’(沙浦)에서 명칭을 따왔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자어 그대로 해안이나 강가에 조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歸鄕」 편에서 “반갑고나 鴨綠江 예대로의물. / 건너서니 新義州 여긴 내나라.”(25회), “예서沙浦 五리는 단숨길이라, 예前에 이五리는 각금 단닌길”(26회) 등의 구절에서 추정컨대 ‘사포촌’은 신의주나 그 근방일 터, 대략적 위치가 평안북도 왼쪽 해안선 지역이다. 사포촌의 구체적 묘사를 들여다보면 김억의 고향 풍경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억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定州)인데, 정주는 비교적 평지가 많으며 특히 해안에 넓은 해안 평야가 발달된 곳으로 내륙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하며 살기 좋은 편이었다.³¹ 김억은 자신이 살던 동리(洞里)에서 2리가량 떨어진 거리에 ‘바다’가

30 송영순(2013), p. 269.

31 「정주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7.10.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0904>.

있었다면서 “봄철에 꽃도 좋거니와, 저 멀리 바다에 떠도는 흰 돛대라든가, 맑은 날에 뚜렷이 나타나는 身彌島라든가 여간만 좋지 않습니다.”³²와 같이 회고했는데 이러한 장면은 사포 풍경과 거의 유사하다.³³

‘사포촌’ 3회 마지막 구절에서는 “내世上엔 웬일고 솟에는바람 / 아름답은 모든것 나날이지네”라며 평화로운 사포에 차츰 어둠이 드리우며 다가 올 불행한 사건들을 암시한다. 실상 ‘적은고개’를 사이에 둔 사포와 포구의 극단적 대비는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이는 사포촌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안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당시 압록강 철교를 통해 만주의 안동과 연결되는 접경지대다. 사포촌도 애초에 변경(邊境) 지대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공간이다. 이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서 ‘두만강’으로 상징되는 ‘국경’ 이미지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³⁴ 예컨대 “김동환의 함경도, 『국경의 밤』은 “눈 속에 파묻히는 하-연 북조선, 쫓겨난 때리는 북국의 청렬한 바람으로 나른한 서울 무단을 통쾌하게 강타했다. (...) 우리 근대 문학에 북국 정서를 끌어들이고 파인”³⁵, “‘변경’을 통한 북국의 이미지 강화”³⁶ 등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북국’ 혹은 ‘북방 정서’라는 용어는 북쪽 지방의 지형, 기후적 특색 등이 혼용되어 있는 개념으로 실상 변경 지대의 삶을 포상한다고 할 수 있다.

흰눈이 가득 싸이고 모래바람甚한 北쪽나라 山國에서 生을 밧아, 高요
히 어린새를 보낸 巴人君이 그獨特한 情緒로써 설음가득하고 寤김만흔 故

32 「關西出身 文人 諸氏가 「郷土文化」를 말하는 座談會」, 『삼천리』 제12권 제5호, 1940.5.1.

33 「지새는밤」 6회 「相思」 편에서 “압들엔 기심놀에 프른바다엔 / 白日青天 어려서 가는흰돛대.”와 같은 구절의 묘사는 김억의 고향 관련 언급과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34 한영옥(1980), 「巴人·金東煥의 詩 特質 研究」, 『연구논문집』 13, 성신여자대학교, pp. 37-55.

35 최원식(1997), 「지방을 보는 눈」,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7, p. 69.

36 송기환(2008), 「김동환 시에서 「민족」의 의미 연구」, 『韓民族語文學』 53, 한민족어문학회, p. 344.

鄉인 ‘國境方面’서 材料를 取하여 沈痛悲壯한 붓짓으로 ‘로맨틱’한 敘事詩와 그밖에 靑春을 노래한 서정시 몇편을, 制作하여 ‘국경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只今 世上에 보내게 되었스니. 대개 이러한 詩作은 오직 이러한 作者의 손을 거쳐서야 비로소 참生命을 發現할 것인 줄입니다. 더구나 이 表現形式을 長篇敘事詩에 取하게되었슴은 아직 우리 詩壇에 처음잇는 일이매 (….) 그래서 그 엄숙한 힘은 熱烈하게 現實을 ‘메쓰’하여 까지 안으며, 보드러운 美는 다사한 ‘휴-매’의 色租를 지어, 높히 人生을 노래합니다.

- 김억, 「序文」³⁷

김억이 「지새는밤」 배경으로 ‘사포촌’을 설정한 것은, 김동환이 『국경의 밤』에서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鏡城)에서 체험한 “독특한 정서”, 즉 “모래바람甚한 北쪽나라 山國”과 맞닿아 있는 ‘國境方面’의 삶을 “沈痛悲壯”하게 다룸으로써 “熱烈하게 現實을 ‘메쓰’”하고 있다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경의 밤』을 최초의 ‘장편서사시’로 평가하는 김억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국경지대’의 특수성에 있기 때문이다. 명순과 영애는 평화로운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쓰겁은맘”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연인 관계였으나 소작농이었던 집안의 몰락으로 명순네 가족이 만주로 야반도주함으로써 생이별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포촌’의 ‘몰락’에 있다. 사포촌의 극적 변화는 8회~11회 ‘沒落’편에서 “넓은쌍 들도만흔 살진이들엔 / ㅅ사람이 들오네 主人뻘뻘네”, “살진들 새主人의 본래計劃이 / 이浦口의 漁業權 잡자는거니 / 小資本이 큰資本 어이當하라”, “西北間島 쌍조와 살기조타고 / 건너집 三男이도 昨年갓다우”고, “故鄉을 울어넋고 ㅅ나는무리, / 그心.思는 무어라 말하길업네.”³⁸ 등과 같은 구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37 김동환(1925), 『국경의밤』,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2.

38 『동아일보』, 1930.12.12.~13.

사포촌의 ‘몰락’은 ‘주인’이 바뀐 일로 표현되는데, 이는 1910년 한일 합병(韓日合併)은 물론이거니와 1917~1918년 ‘동양척식회사’(東洋殖産會社)가 펼친 토지조사사업으로 가속화된 조선 농촌의 몰락을 우회적으로 지시한다.³⁹ 사포촌 바다에서의 어획 역시 “새主人의 본래計劃”에 의한 ‘어업권’ 상실로 불가능해졌다는 표현은 일제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사건들을 암시한다.⁴⁰ 조선 농촌의 몰락은 당시 많은 농민의 만주, 시베리아 등지로의 이주로 이어졌는데, “西北間島 쌍초와 살기조타고” 말하며 떠나는 무리들을 따라 명순네도 고향을 등진다. 생계를 위해 이향을 선택하였으나 이들의 이향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통하게 묘사된다. 이렇게 사포촌의 몰락은 조선 전역의 상황을 알레고리화 한다. 여기 내재된 ‘고향 상실의식’은 물리적 ‘고향’을 비롯하여 ‘유년기, 어머니, 조국’의 ‘상실’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체로 하여금 ‘부재와 상실’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명순은 사포촌을 떠나 희망을 안고 만주로 이주하지만 척박한 풍토, 지주의 횡포, 두 부모와의 사별 등으로 괴로운 삶을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다시 사포행을 결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되돌아온 고향이 이전의 고향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에 있다.

반갑고나 鴨綠江 예대로의물, / 건너서서 新義州 여긴내나라. / 돌아보
니 저편은 남의나라의 / 생각만도 시선한 못니줄滿洲. // 나고자라 늘듯든

39 문정창(1967),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상, 백문사, p. 236.

40 이와 연결하여 통영에서 불거진 어업권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조선어민의 어업권을 일본인어조(日本人漁組)에서 독점하여 이에 항의성 어민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漁業權의 大部分을 日本人漁組가 獨占, 조선사람 경영의 것은 모다뻗어, 朝鮮漁民은 號天痛歎//負債만흔 漁組救濟의 一策, 조선사람은 하는 수가 업서 來二日에 漁民大會」, 『동아일보』, 1929.8.1.).

41 이명찬(1999), 「1930년대 후반 한국시의 고향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6.

「여보」소리여, / 눈에익은 흰옷은 내祖國이라. / 이몸을 되놈이라 생각지
 말소, / 옷은비록 뿔(胡)망정 맘은흰朝鮮. // (...) 알고보니 沙浦는 남의村이
 요, / 찾고나니 옛사람 모다떠났네, / 여저기 가다가다 옛집잇으나 / 門牌
 보니 모도다 낯선이름쑤. // (...) 누굴차자 明順이 故鄉왔든고 / 滿洲보다
 沙浦는 더他鄉이라 // (...) 불지어가, 浦口짜 굴쪽집에선 / 해마다 만드나니
 「간즈메」筒을, / 新作路 넓은길엔 짐自動車의 / 오가는 뽕뽕소리 날마단것
 을.

- 25~27회 ‘歸鄉’ 부분

‘歸鄉’ 편에서 명순은 만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운 고향, 사포춘
 으로 되돌아온다. ‘압록강’과 ‘신의주’를 바라보며 “여권내나라”이고 만주는
 “남의나라”라고 강조하는 목소리에서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읽힌다. “눈
 에익은 흰옷”은 명백한 ‘조선’의 상징이다. 그러나 사포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문패에 “낯선이름”들이 즐비한 “남의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명순이 만주를 유랑하는 7년 동안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노출되어 “滿洲보다 沙浦는 더他鄉”이 되어버린 것
 이다. 예전의 사포춘은 바닷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거나 고기잡이를 하
 는 어촌마을이었던 반면, 지금 사포의 포구에는 “굴쪽집”으로 묘사되는 공
 장이 많이 세워져 공장지대를 방불케 한다. ‘간즈메’(かんづめ), 즉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은 사포춘의 변화를 단적으로 포착하여 보여 주는데 아마도 어
 업권을 장악한 ‘남의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대거 건설했
 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신작로 위로 자동차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사
 포춘은 이를테면 식민 권력과 자본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한 ‘식민-도시’⁴²

42 ‘식민-도시’(Colonial City)는 식민지에 위치한 도시, 식민 지배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
 진 도시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당시 조선의 도시에서는 ‘수탈’을 목적으로 “허구의 도시화
 (false urbanization)”가 진행되었다[현재열·김나영(2011),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
 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pp. 655-689].

이다.

명순과 영애가 ‘사포촌’이 아닌 평안북도의 최북단 ‘삭주’(朔州)에서 재회하게 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사포촌’이라는 과거의 고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삭주’는 신의주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귀향 이후 변질된 사포촌에 실망한 명순이 금광촌 광부로 제2의 삶을 시작한 공간이자 평양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영애가 다시 뜨내기로 떠돌다가 우연히 재회하는 공간이다.⁴³ 삭주는 임시 정착지이자 ‘변경’으로서의 의미가 강화된 또 다른 ‘타향’이다. 정지용이 시 「고향」에서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⁴⁴라고 노래했듯이 명순과 영애의 고향 상실의식은 개인의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다. 「지새는밤」에서의 ‘고향 상실의식’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급속화된 농촌의 몰락과 이향, 만주 이주, 귀향 등 조선의 당대 여러 문제들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향 상실의식’을 강하게 피력하는 것은 ‘지금’의 고향에 발생한 문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적 세계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성, 동시대성의 확보로 해석될 수 있다.

3. 만주(滿洲)의 당대성과 공동체적 ‘유랑’의 모티프

서사시는 ‘우리’라는 공동체에 관한 역사적·현실적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담고 있어야 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명

43 김소월은 시 「朔州 龜城」에서 “물로 사흘 배 사흘 / 먼 三千里 / 더더구나 거러 넘는 먼 三千里 / 朔州龜城은 산을 넘는 六千里요. / (...) 서로 떠난 몸이길내 몸이 그러워 / 님게 신 곳이길내 곳이 그러워”라고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과 그리움을 노래했는데, 이러한 시 세계를 이어받아 두 사람이 재회하는 공간으로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素月, 「朔州 龜城」, 『개벽』 제40호, 1923.10.1).

44 『동방평론』 2호, 1932.7. 정지용(1988), 『정지용 전집』, 민음사, p. 97.

순과 영애의 낭만적 사랑의 통속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으나 의외로 사랑 이야기는 「지새는밤」에 전면화되어 있지 않다. 헤어진 뒤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 집안이 급속도로 ‘몰락’하는 과정과 ‘유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명순은 ‘낙토’(樂土)로서의 만주에 기대를 안고 떠나지만 만주에서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일 뿐이다. 영애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어머니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서둘러 결혼을 하지만 ‘망나니’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뒤 평양으로 이주해 기생이 되어 술과 웃음을 팔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명순은 1920~1930년대 몰락한 농촌과 조선 농민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이며, 영애는 일제강점기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이중적 타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삶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다. 즉 명순과 영애는 공동체적 주체로서의 개인이며 이들의 삶의 여정은 당대 조선의 민족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내장한다.

먼저 명순의 삶을 살펴보면, 명순네 가족은 사포촌의 몰락과 함께 만주(滿洲) 이주를 결정한다. 여기서 공간적 배경으로 ‘만주’가 활용된 이유는 실제로 당시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만주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새는밤」 전체 40장이 사포촌(3장)-생장(2장)-상사(2장)-몰락(4장)-이향(3장)-만주(10장)-귀향(4장)-영애(8장)-재회(4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만주’는 가장 긴 서사를 차지하고 있는 장이자 특별한 공간이다. 1916년 이후부터 ‘만주로의 이민’이 ‘격증’하는데 이는 주지한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조선 농촌의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⁴⁵ 1920~1930년대 많은 조선 농민들은 더 이상 소작농으로서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었고 이향을 택한다.⁴⁶ 특히 만주는 명순이 반복적으로 되뇌듯이 풍요로운 ‘낙토’(樂土)로 인

45 1920년 기준 만주 이주 인구는 55만 명에 달하였다[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p. 33].

46 「東으로 일본 北으로 만주 漂流하는 同胞 봄이 될수록 더욱 늘어가, 金泉 經過한 六百農民」, 『동아일보』, 1927.2.17.

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경작 방식의 차이로 중국인, 만주인 등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낙인에 의해 온갖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최하층민이 되었다.⁴⁷ ‘낙토’ 만주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지는 모든 과정이 명순의 만주 체험에서도 고스란히 읽힌다.

거슬대로 거슬은 生疏한곳에 / 人家라고 여저기 한들잇으나 / 싼나라의
말소리 귀에서썰고 / 만나나니 시킴한 胡人들이라 // 世上樂土 滿洲라 차
자왔건만 / 쓸쓸하다 웬일가 참못보겠네 / 보습이란 한번도 대인적업는 /
예대로 늙어자는 거촌荒蕪地 // (...) 사노라면 沙漠도 樂園된다고 / 싼하
게 들과되는 거촌滿洲를 / 그곳에서 樂불일 하나업건만 / **살고나니 일곱해
情들어오네** // (...) 「이가을엔 죽어도 沙浦로가자」 / 몸죽으니 그말도 모다
虛事요 / 거촌들을 의론魂 혼자헤매리. / 가을이니 沙浦로 갈날되건만 //
(...) 열十字 한복판에 셋는明順이, / 갈바람은 곁곁히 불며돌아도 / 그몸에
선 넙조차 질길도없고, / 두로두로 살피도 갈길은업네. // (...) 白頭山 꼭대
기로 말을몰을가 / 太平洋- 바다에다 배를띄울가, / 오도가도 갈길은 하나도
업고 / 펼펼쓸는 이心장 혼자뛰노나. // 南北滿洲 넓은들 모다제天地, / 馬
賊에다 이몸을 맞기고말가, / ××× ×××× ×××××, / ××× ××
×× ×××××. // 가튼하을 이쌍에 난몸으로서 / 가튼해 가튼벗을 가지
맞거니. / 이身勢 이꼬라진 어인일인가. / ××××, ××× ×××××. //
淸酒를 들어키고 흠씩醉하야 / 참아못볼 이現實 한번웃으며, / 혼자로서
한世上 지내보낼가, / 아니라면 갈길은 어느것인고. // 朝鮮아 三千里야 열
굴을 보자 / 네니마엔 구름썸 풀이틀렸다.

- 15~24회 ‘滿洲’⁴⁸ 부분

47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정모(2004), p. 105, pp. 115-116.

48 『동아일보』, 1930.12.16~21.

「지새는밤」에서 ‘滿洲’ 편은 그간 연구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문제적 구절들이 상당히 많다. 명순은 “世上樂土 滿洲라 차자왔건만” 실제로 경험한 만주는 “거튼荒蕪地”일 뿐이라고 깊은 실망감을 토로한다. 우선 땅이 황무지처럼 척박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거둬들이는 쌀의 양이 부족했고 지주에게 일정부분 떼이고 나면 끼니를 잇기에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일곱 해’ 동안 힘겹게 지내며 조금씩 ‘정’ 붙이며 살아가려 마음먹지만 갑작스럽게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뜨자 명순은 온전히 혼자 되었다는 외로움과 허망함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검열로 인해 복자 처리된 구절이 있을 정도로 문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만주와 조선의 경계지대에 서서 ‘백두산’에서 ‘태평양’까지 자신의 사유를 세계 전체로 확장하고 있는 명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영웅적 면모까지도 띠고 있다.

특히 복자 처리된 구절 앞뒤를 살펴보면, 그는 “馬賊에다 이몸을 맞기고 말가”라고 말하고 있다. ‘마적’(馬賊)이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무리를 의미하므로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남의 재물을 빼앗으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겠다는 자포자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주행을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는 일제에 의해 “정치적 불평분자층”⁴⁹이라고 명명되는 독립 운동가들도 상당했으며 이들 역시 ‘비적’(匪賊), ‘마적’(馬賊), ‘공비’(共匪) 등으로 불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30년대 초까지 조선인 ‘비적’은 주로 “부자들이나 친일 인사들을 습격”하고 “쌀을 빈자들에게 나눠주”는 흡사 ‘의적’(義賊)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⁵⁰ ‘鮮人 匪賊’은 ‘사회운동가’, ‘공산주의가’ 등 ‘투쟁가’와 구분되지 않았다. 복자 처리된 부분에 실제로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후 개작한 『먼동틀제』에서 이 부분은 “馬賊에다 이몸을 맞기고 말가, / 붉은旗 내벗이라

49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2004), p. 32.

50 한석정(200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p. 186.

고함을 칠가, / 斷頭台 무엇이냐 목숨 밧이리. // 같은하늘 이땅에 태어난 몸의 / 같은해 같은별을 왜 못받을가 / 이身勢 이꼬라진 어인일인가. / 두다리사, 世上은 모다 망난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馬賊”, “붉은旗”, “斷頭台”는 마적, 비적, 공비 등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고 이들의 목을 베어 전시한 일제의 잔인한 정책을 연상시킨다.⁵¹ 이때 명순은 마적을 “내벗이라 고함” 치고 싶고 자신도 ‘단두대’에 목숨을 바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현재 자신의 신세와 ‘꼬라지’가 참으로 비참하다고 절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적은 외부적 시선에 의해 도둑으로 타자화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도둑이 아니라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난이” 같은 세상에 저항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전위적 목소리가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朝鮮아 三千里야 얼굴을 보자 / 네니마엔 구름뿐 솔이틀렀다”면서 ‘조선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열十字 한복판에”서 갈팡질팡하는 명순의 모습에서는 복잡한 내적 갈등이 읽힌다. 1930년 발표 당시로서는 명순이 마적이 된다는가 하는 서사는 검열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⁵² 그러나 김억이 신문에 복자 처리될 정도로 저항적 목소리를 담으려 시도한 점은 충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⁵³

51 윤휘탁(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일조각, pp. 115-156. 유치환의 「首」(『국민문학』, 1942.3.)에서 비적의 잘린 머리가 전시되는 만주의 풍경이 묘사되기도 한다.

52 흥미로운 사실은 김억이 이후 『매일신보』에 1935년 5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편 홍길동전」이라는 ‘서사시’를 작성, 게재했다는 점이다. 「신편 홍길동전」은 “홍길동의 대기를 韻文으로 敘事詩화하여 부르기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서사시’다(「신편 홍길동전」, 『매일신보』, 1935.5.18.). 「지새는밤」의 ‘마적’, 즉 ‘의적’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 결과일 수 있다고 본다.

53 이와 관련하여 김억의 첫 시집 『해파리의 노래』가 당대 조선의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며 ‘세계고’(世界苦)에 대한 인식을 ‘조선고’(朝鮮苦)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교체하고 있다는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조은주(2020),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에 나타난 ‘표박(漂泊)’의 의미: 1920년대 세계고(世界苦) 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과 예술』 36, 사단법인 한국문화과학예술연구소, pp. 215-248]. 즉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

「지새는밤」에서 만주와 조선의 경계에서 현실을 응시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명순의 모습은 급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노래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 즉 ‘백두산’과 ‘만주’가 곧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이자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기억을 간직한 고토(古土)로서의 ‘북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⁵⁴ ‘만주’에서는 국권을 잃고 유랑하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조선인들의 ‘현재’의 역사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영위했던 민족의 위대한 ‘고대’의 역사가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표면적으로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로 은폐되어 있지만 김억이 「지새는밤」을 통해 정말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 대목에 함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명순은 마적을 선택하지 않았고(못했고) ‘삭주 금광촌’에서 목숨 값으로 시간당 고작 임금 10원을 받는 광부로 전락한다. 그의 영웅적 목소리는 중단되고 다시 끝없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조선 민중의 처지를 보여 주는 위치로 내려간다.

삭주에서 재회하게 되는 영애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9~36회에 걸친 ‘永愛’편에서 영애 집안의 몰락과 평양으로의 이주, 기생으로 전락하는 과정 등이 펼쳐진다. 영애의 삶 역시 생존을 위해 낯선 타향으로 옮겨 다니던 조선 민중의 상황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여성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웠는지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영애는 명순네 가족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간 뒤에도 얼마간 사포촌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한다. 그러나 “삭전만히 준다는 달콤한맛에 / 오랍同生 배타고 써나간것이”, “消息엿는 외아들 차자본다고, / 이번에는 아버지 길을써나네”, “바다까 모래밭엔 외롭은송장, / 아들차자나간이 몬저들왔네” 등에서 알려주듯이 고기잡이로 집안의 위기를 타개해 보려던 남동생의 실종, 외아들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죽음 등을 연달아 맞

적 인식은 첫 시집에서부터 확인되는 김억의 중요한 시 정신이며 「지새는밤」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54 박효환(2008),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pp. 14-21.

이하고 결국 ‘늙은 어미’와 ‘영애’ 둘만 남게 된다. 남성적 존재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이世上은 금음밤”처럼 암울해지고 두 여성은 생계를 위해 ‘이향’을 결정하고 ‘평양’으로 떠난다.

「沙浦서 귀차한솔 보이기보다 / 떠나서면 죠힌일 생길가하고 / 어이쌀
손을잡고 길을 나서니 / 모도다 生疎하고 길은각가지 //(...) **오랏 同生 아
부지 예이고나서, / 이世上은 금음밤 동도안트네. //(...)** 중매녀석 쓴말에 어
머니속아 / 죠힌男便 福이라 깃버하드니, / 가고보고 서방은 쓰내기몸의 /
每日長醉 틀녓다, 술만 처먹네. //(...) **平壤江山 낫설고 물도설은데, / 누굴
밧고 이생을 보낼것인가. / 단두母女 같길은 도모지업고 / 世上엔 誘惑의길
흔힐날업네. // 가는歲月 여섯해 덧업는길을 / 짓고나니 사람은 變하고마
네. / 「어머니 술도주고 안주주셔요.」 / 옛날永愛 只수는 梅花로行世 //(...)
大同江 물이맑고 살기조타고 / 철업는 사람들아, 말을말으라 / (...) 「이내몸
은 철쌀아 도는기러기. / 쓴시름은 하로도 썩날날업네, / 南北하늘 삼חת케 날
아돌으나 / 離別이 하도자자 난못살겠네.**

- 29~36회 ‘永愛’⁵⁵ 부분

평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중매를 보고 결혼을 한 것이다. 당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으므로 ‘결혼’은 중요한 돌파구였다. 그러나 중매쟁이 말에 속아서 술만 먹고 밖으로 도는 남편을 만났고 그마저 “말업시 떠나” 3년 넘게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 “품과리 썩장사”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梅花’라는 이름의 기생이 된다. 영애는 평양에서 기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데 이는 기생의 신분 추락과도 연결되어 있다. 기생은 전근대적 시기부터 ‘기예’와 ‘섹슈얼리티’라는 두 차원에서 향유되는 존재들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공창제(公娼制)의 도입으로 ‘창기’(娼妓) 혹

은 ‘매춘부’(賣春婦)로 통칭되면서 상품적 가치로 재배치되고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⁵⁶ 기생의 평균 수입은 50~6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고 평양에는 한 달에 65전밖에 못 버는 극빈층 기생이 10명이나 있었다.⁵⁷ 생계 때문에 ‘매화’로 살고자 했던 영애는 전문적 기생들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였을 것이다.⁵⁸ 영애는 “大同江 물이 맑고 살기 조타고 / 철업는 사람들아, 말을말으라”, “「이내몸은 철쌀아 도는기러기, / 쓴시름은 하로도 떠날날업네”라고 노래하며 유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한다.

결국 영애는 평양 생활을 접고 다시 삭주로 옮겨 가는데 이러한 끝없는 ‘유랑’의 삶은 일제강점기 이중적 타자였던 여성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 준다. 여성은 제국주의의 타자이면서 자본주의의 타자였던 것이다. 영애가 선택한 ‘기생’이라는 직업도 의미심장하다. 예컨대 김소월의 「팔버개 노래調」⁵⁹에서 ‘기생 채란’은 13살에 ‘팔려가’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비참한 처지로 소개된다. 고향을 잃고 끝없는 유랑의 운명 아래 놓인 채란은 당대 조선의 민중적 존재를 상징한다. 이용악이 “북쪽은 女人이 팔려간 나라”(北쪽)⁶⁰라고 노래하고 백석이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조선 ‘계집아이’의 ‘울음’에 주목했듯이(「八院 - 西行詩抄3」⁶¹), 여성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팔려가는’ 존재들이었다. 여성은 국가와 제도, 자본주의, 제국

56 서지영(2005),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I): 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67-294.

57 서지영(2005), p. 291.

58 평양에는 전통적인 노래부터 춤, 악기, 서화, 일본 노래, 서양식 댄스 등을 가르치는 전문 기생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 말 160여 명, 1930년대 중반에는 300여 명 정도로 많은 전문 기생이 배출되었다[박찬승(2015), 「식민지시기 다중적 표상으로서의 평양기생」, 『동아시아 문화연구』 6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 13-51].

59 김소월, 「팔버개 노래調」, 『假面』, 1926.8(오하은 편저(1995), 『원본 김소월전집』, 집문당, pp. 260-263).

60 이용악(1937), 『분수령』, 東京: 三文社.

61 『조선일보』, 1939.11.10.

주의로부터 소외된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영애는 바로 그러한 소수자로서의 조선 여성들의 삶을 대표하고 있다. 요컨대 명순과 영애가 삶을 통해 형상화하는 ‘유랑’의 모티프는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들의 열악한 삶의 방식,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명순과 영애는 유맹(流氓)으로서의 조선인의 민족적 운명을 체현하는 존재들인 셈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지새는밤」의 결말과 서사시적 상상력의 가능성

來日에는 明順이 썩나고마니 / 씨리씨리 손잡고 휘돌아줄제 / 『梅花』 두
字 등불에 눈에씩씩네. // 돌아서니 밝은房 아래목에는 / 늙은이 잠이깊고
절믄게집은 / 무엇을 생각는고, 혼자안것네 / 아아 明順웬일가! 썩는말소
리 // 술醉한 사나이의 흐린맘이라 / 『언제부터 안다고 이모양일가』 / 『열
결길에 웃으며 『梅花』 잘잇소』. / 자즌답이 꼬우요, 밤은지새네. // 움죽이는
이세계 거춘물우에 / 닢과꽃이 썩업시 헤매들다가 / 다시금 만나거라, 明順
과永愛 / 자즌답은 꼬우요, 밤이지새제.

- 37~40회 ‘再會’ 부분⁶²

「지새는밤」의 마지막 ‘再會’ 편에서 두 사람은 ‘삭주’ 금광촌에서 광부와 기생으로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 명순은 ‘생지옥’ 같은 금광촌에서 목숨을 담보로 채굴하면서 술과 ‘수심가’를 위안 삼아 살다가 다시 이주를 결심하는데, 떠나기 하루 직전 극적으로 영애와 만난다. 만남 자체는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지만 “자즌답은 꼬우요, 밤이지새제”라는 구절이 미래를 암시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두 사람의 불행한 삶과 절망적 현실로서의 ‘밤’은

62 『동아일보』, 1930.12.28.~29.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때 ‘밤’이 암울한 조선의 상황을 상징하며 일제강점기의 알레고리라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인 해석도 물론 가능하다. 개작된 『먼둥틀제』의 ‘재회’ 편에는 “來日날은 己未年 三月初하로 / 어둠은 이江山에 동이 튼다고”와 같은 구절이 추가되었고 작주는 3·1운동을 예고하는 저항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⁶³ 그러나 검열 등 여러 현실적 제약에 의해 「지새는밤」에서 미래는 은유적으로 암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새는밤」은 조선 농촌의 몰락과 고향 상실, 이향, 만주/평양으로의 이민/이주의 실패, 유랑 모티프 등을 통해 1920-30년대 동시대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로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 민중의 현실을 포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향 상실의식’과 지속적인 ‘유랑’ 모티프를 통한 당대성, 동시대성의 확보는 궁극적으로 민족의 운명에 관한 사유로 연동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주제론적 차원에서 「지새는밤」은 근대적 서사시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국경의 밤』보다 한층 심화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⁶⁴ 특히 ‘몰락’과 ‘유랑’의 한가운데 거친 황무지 ‘만주’가 놓여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⁶⁵ 「지새는밤」의 만주 체험과 유랑 모티프는 첫 시

63 작주를 포함한 평북지역이 1920년대 험준한 산악지대로 인해 황금광 시대를 연 땅이자 일찍이 근대화된 서북인들에 의해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는 사실을 참고하면[송영순(2013), p. 268], 애초에 김억이 작주를 재회의 장소로 선정할 때 이러한 결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64 『국경의 밤』에서 다룬 ‘국경지대’의 불안한 삶은 「지새는밤」에서 ‘유랑’하는 민중의 삶으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만주 유랑 모티프는 1930~1940년대 조선의 현실과 맞물리며 이용악, 백석 등의 서술시에서 광범위하게 서사시적 상상력으로 작동한다. 「지새는밤」은 ‘유랑’을 전면화하여 다룬 거의 유일한 서사시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듯 「지새는밤」을 통해 시도한 ‘서사시’는 김억에게도 특별한 장르적 도전이자 ‘조선시형’의 탐색과 연결된 중요한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敍事詩 아낙네 一生」(1933), 「新編 洪吉童」(1935) 등을 연달아 발표하였고 해방 후 「지새는밤」을 개작한 『먼둥틀제』(1947)를 출간하는 등 ‘서사시’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간다.

65 극심한 이농 현상, 만주 유포피아니즘, 가난으로 인해 팔려간 여성들, 금광 열풍, 이주지 만주에서의 불행한 삶, 고향으로의 귀향 등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겪고 있었던 동시대적

집 『해파리의 노래』의 ‘북방의 소녀’편에 등장하는 ‘북방’과 ‘표박’ 이미지를 심화시킨 것으로 공동체적 운명에 관한 사유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용악의 「낡은집」, 「하늘만 곱구나」,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 「北方에서 - 鄭玄雄에게」 등 ‘만주’를 배경으로 활용한 텍스트들이 유독 장시로 창작되었던 점은 서사시적 상상력과 만주 체험의 상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⁶⁶

김윤식은 장르 상동성 이론을 통해 하나의 장르를 선택하는 문제가 시대적 상황이나 역사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⁶⁷ 또한 김용직은 금성파의 민족적 자각과 현실 의식이 서사시를 창작하도록 이끌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⁶⁸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면 만주 체험을 통해 얻게 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역사의식이 ‘서사시’라는 ‘인식의 틀’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⁶⁹ 특히 본고에서 제시한 서사시의 형식적 조건 가운데 ① 혹은 ②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갖춘 시들은 장르적으로 ‘서사시’가 아닌 ‘비율문형 산문시’나 ‘서술시’에 귀속되지만 ‘서사시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론적 개념을 통해 새롭게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김억의 「지새는밤」이 표면적으로 사랑과 이별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동시대적 이야기로 당대 분위기를 적극 환기하듯이, 근대시에서 서사시적 상상력은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여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사유했던 정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들은 상당수 ‘만주’라는 공간과 결부된다[조은주(2020), p. 242].

- 66 조은주(2015),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시학』, 국학자료원, pp. 356-357.
- 67 김윤식은 20년대 시 장르의 선택, 30년대 소설 장르의 선택이 ‘역사의식’과 결부된 결과라고 보았고 김준오 역시 이에 동의하며 장르는 ‘인식의 틀’이라고 정리한다[김윤식(1973), 「한국문학연구에 있어서의 장르의 문제점」,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pp. 415-430; 김준오(1990), p. 52].
- 68 김용직(1991), 『한국근대시사(上)』, 학연사, pp. 284-295.
- 69 조은주(2015), p. 357.

참고문헌

자료

- 김동환(1925), 『국경의밤』,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김억(1987), 『岸曙 金億全集』(박경수 편), 한국문화사.
 이용악(1937), 『분수령』, 東京: 三文社.
 『개벽』,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장』, 『삼천리』, 『조선일보』 등

【논저】

- 고형진(2003), 『현대시의 서사 지향성과 미적 구조』, 시와시학사.
 광효환(2008),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김영진(1992), 「한국근대서사시의 전개양상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철(1994), 「산문시와 이야기시의 장르적 성격 연구」, 『인문과학논총』 26, 건국대인문과학연구소.
 김용직(1991), 『한국근대시사(上)』, 학연사.
 김윤식(1973), 「한국문학연구에 있어서의 장르의 문제점」, 『한국문학사논고』, 범문사.
 김은철(1987), 「『면동틀제』 연구」, 『한민족어문학』 14, 한민족어문학회.
 김재홍(1985), 「한국 근대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가을호[『현대시와 역사 의식』(1990), 인하대학교 출판부].
 김종길(1969), 「한국에서의 장시의 가능성」, 『문화비평』 1-2, 여름.
 김준오(1990), 『한국 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김형철(1994), 「한국 현대 서사시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필(2000), 「민요시와 『면동틀제』」, 『한국어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문학연구회.
 김홍진(2005), 「김억의 「면동틀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문정창(1967),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상, 백문사.
 민병욱(1987), 『한국 서사시의 비평적 성찰』, 부산: 지평.
 박은미(2004), 「장르 혼합현상으로 본 이야기시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박찬승(2015), 「식민지시기 다중적 표상으로서의 평양기생」, 『동아시아 문화연구』 6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서지영(2005),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Ⅰ): 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지영(1999), 「한국현대시의 산문성 연구: 오장환, 임화, 백석, 이용악, 이상 시를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기한(2008), 「김동환 시에서 「민족」의 의미 연구」, 『韓民族語文學』 53, 한민족어문학회.

- 송영순(2013), 「「국경의 밤」과 「지새는 밤」의 상호텍스트성」, 『한국문예비평연구』 42,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엄경희(2005), 「서술시의 개념과 유형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 6(2), 한국근대문학학회.
- 여지선(2011), 「한국 장시와 역사적 상상력의 다층성」, 『우리말 글』 53, 우리말글학회.
- 염무웅(1981), 「서사시의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문학의 현대단계 1』(1982), 창작과비평사.
- 오세영(2003), 『문학과 그 이해』, 국학자료원.
- 오세영(1977), 「국경의 밤과 서사시의 문제」, 『국어국문학』 75, 국어국문학회.
- 오윤정(2007), 「한국 현대 서사시의 서사 구조 상동성 연구」,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 오하은 편저(1995), 『원본 김소월전집』, 집문당.
- 윤여탁(1987), 「1920년대 서사시에 대한 연구: 「국경의 밤」과 「지새는 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6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윤석우(1998), 「한국 현대 서술시의 담화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휘탁(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일조각.
- 이명찬(1999), 「1930년대 후반 한국시의 고향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도준(2000), 「한국 근대 서사시와 단편서사시의 장르적 특성 연구」, 『국어국문학』 126, 국어국문학회.
- 장부일(1992), 「한국 근대 장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용(1988), 『정지용 전집』, 민음사.
- 조남현(1978), 「김동환의 서사시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논총』 11,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조동일(1990), 「서사시의 전통과 근대소설」, 『관악어문연구』 15(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조동일(1987), 「서사시론과 비교문학」, 『한국문화』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조은주(2020),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에 나타난 ‘표박(漂泊)’의 의미: 1920년대 세계고(世界苦) 담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36,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 조은주(2015),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시학』, 국학자료원.
- 최원식(1997), 「지방을 보는 눈」,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 최재서(1938), 「센티멘탈론」, 『문학과 지성』, 인문사.
- 한석정(2009),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한영옥(1980), 「巴人·金東煥의 詩特質 研究」, 『연구논문집』 13, 성신여자대학교.
- 현재열·김나영(2011),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홍기삼(1975), 「한국 서사시의 실제와 가능성」, 『문학사상』 3월호.

- Agamben, Giorgio (2014), 김영훈 역, 『별거벗음』, 고양: 인간사랑.
- Aristoteles (2002),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 Genette, Gérard (1987), 최애리 역, 『原텍스트 序說』, 『장르의 이론』(김현 편), 문학과지성사.
- Moretti, Franco (2001), 조형준 역, 『근대의 서사시』, 새물결.
- Pearce, Roy Harvey (1961),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Tillyard, E. M. W. (1965), *The Epic Spirit* (L.S. Hall eds.), The Macmillan Company.
- Wellek, Rene and Austin Warren(1990), 이경수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원고 접수일: 2023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8일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pic Imagination on Kim Eok's “A Sleepless Night (지새는밤)” (1930)

Cho, Eunjoo*

This paper examines Kim Eok's “A Sleepless Night” as a Korean modern epic poem that encompasses themes of contemporaneity, communal destiny, and introspective reflections. I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poem's content and semantics, shedding light on its specific aspects. “A Sleepless Night” was serialized in Donga Ilbo from December 9 to 29, 1930, under the subtitle of ‘lyrical epic poem’. The narrative revolves around themes of love, separation, wandering, hardships, and eventual reunion. Notably, the poem extensively explores the themes of ‘downfall’ and ‘wandering’ experienced by two families. The collapse of Sapo village serves as an allegory for the demise of rural areas due to the Land Survey Project and the overall situation in Joseon. The resulting ‘consciousness of loss of hometown’ triggers reflections on absence and loss. Myeong-soon's family relocates to Manchuria with dreams of a prosperous life but faces continuous poverty and death of his parents, fading their expectations. Similarly, Young-ae experiences the disappearance of her younger brother, her father's death, and subsequent struggles as gisaeng (korean geisha) after failed marriage. Myeong-soon symbolizes the lif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f a farmer in 1920s and 1930s Joseon, while Young-ae represents the life of a woman in a marginalized position due to colonialism and capitalism. These characters, as communal subjects, embody thoughts on the national destiny of Jose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Particularly, the experiences in Manchuria serve as a pivotal element of epic imagination, propelling contemplation on communal destiny in other modern poems.

Keywords Kim Eok, “A Sleepless Night”, Epic Imagination, Sense of Loss of Hometown, Wandering, Manchuria